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29

아나키스트연대

2020년 11월 29일

차례

1. [법을지키면정상운영이되지않는사업장이있다?]	3
2. [법원의판단에좌고우면하지말자]	3
3. [기만에는오직투쟁으로]	3
4. [그래서느그당이름은?]	4

1. [법을지키면정상운영이되지않는사업장이있다?]

철도노조가 27 일 (금) 부터준법투쟁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 “법”이라는것이신성한것이고, 어떤일이 있어도지켜야만하는것이고, 지키지않는다면엄벌이필요하다고말하는국가의신봉자들에게는놀라운일이 겠지만, “준법”도투쟁이다. 철도노조는안전운행실천, 연장근무거부, 휴일준수를하기로결정했고, 그결과 열차운행은취소되고, 지연되고있다.

이것이보여주는것은자명하다. 코레일은, 한국의철도사업은법을지키면운행할수없다. 안전정비에서불량이나온차량도출고해서굴려야정상운행이가능하다. 노동자들이연장노동, 휴일노동으로갈려나가야정상운행이가능하다. 법이노동자들을지켜주지못함은너무도당연한일이어서, 그저“법대로하자”는것이철도사업에지장을준다.

민주노총의투쟁에“법대로엄정히대처할것”이라는정부에묻는다. 철도노조가파업을선포할때마다매번 “불법파업에엄정히대처하”겠다며대체인력을투입해파업을파괴하려시도하던코레일에묻는다. 법을지키기만해도열차운행에차질이빚어지는, 당신들의“불법조업”에는어떻게“엄정히”대처할것인가?

노동자들이투쟁할때, 자주듣게되는얘기중하나로, 투표잘해서법을잘만들게하라는말이있다. 그리고노동자들은그렇게해왔고, 그결과가이렇다. 법은결코노동자들을지켜주지않는다. 노동자들의파업투쟁에서 단하나라도절차가어긋난다면, 그것은“불법파업”이되어엄정한대처를당한다. 노동자들이법을지키면사업이굴러가지않는데, 그“불법조업”은괜찮다.(심지어, 절차를지키지않고“준법”투쟁을하면, 그건“불법파업”이된다.)

이럴거면그냥법그만하는게낫지않은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9073&ref=A>

2. [법원의판단에좌우면하지말자]

11월 30 일월요일, 학살자전두환의회고록증고조비오신부를’ 파렴치한거짓말쟁이’ 라고표현한데에대한사자명예훼손 1 심판결이선고된다. 전두환이고조비오신부에대해이러한표현을했다는데에천인공노할일임은그누구도부정하지못할것임에틀림없다. 전두환이헬기사격을지시했으며광주에대한학살명령총책임자라는사실이이제는어둠속에숨어이야기할비밀이아니게된덕분이다.

다만법원의판단이라는것은그사안이큰것이든작은것이든늘’ 정치적판단’ 에의해바뀌기마련인것이다. 때문에우리아나키스트연대는내일학살자전두환에대해어떠한판단이나오더라도그다지실망하지도, 기쁘지도않을것이라고단언한다. 작게는성공한쿠데타는처벌할수없다던기이한논리가무엇에의한것이었으며, 크게는여성들이자신의신체에대한결정권을행사한다고처벌받는이모든일들이결국그시대와몇몇인물의정치관, 정치이해관계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노동자대중의사회혁명을이야기하는우리모두는법원의판단에이리저리휩쓸려다니는경향에서이제탈피해야만한다. 법원의판단이아닌나의판단, 나와내주변이들의판단, 그판단을할자유야말로우리가자주적인인간임을보이는출발선일것이다.

학살자전두환에대한판단뿐만아니라우리의투쟁가운데일어나는그모든사법적판단역시가볍게웃어넘기자. 사법부가잘못된것이라고하여사회혁명을향한우리의발걸음이잘못된것이라고생각할아나키스트는없지않겠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3319?sid=102&fbclid=IwAROCApQd14GIY03BdfAOQ9Z4h9Q>

3. [기만에는오직투쟁으로]

전국철도노조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철도고객센터지부의파업이 3 주차에접어들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수준의 저임금과 규정상 2인이 1조로 근무해야 할 지역에 1인이 근무하는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계장기 파업에 접어든 국면에서 사측이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교섭 재개도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토부 또한 노동 시간 단축과 대체 개편 노사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조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지만 응답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 차별 폐지를 공약하며 임기 시작부터 공항 노동자들을 비롯해 수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쳐왔던 문재인 정부의 기만이 까발려진 또 다른 사례다. 정부는 지금 일어나는 것은 노동 운동에 대해 코로나 사태를 평계로 대며 압박하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기에 노동 계급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기업과 자본에는 위기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수십 조를 펴주면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강요하며 코로나 사태의 짐을 온전히 물리는가?

노동자들의 요구 중 하나인 '2인 1조 근무'는 노동 조건의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 운행을 위한 최소 기준이기도 한다. 공공 서비스의 의무란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한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공정성을 위해 투쟁할 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태 간 공공 안전을 강조한 주제에보다 노동 착취를 위해서 안전성 조차 방기하고자 하는가?

우린 정부에 어떤 공정성도 공공성도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모든 것은 노동자의 직접 투쟁에서 나올 수 있을 따름이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들의 정당한 권리 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http://www.tdaily.co.kr/news/view.php?idx=35575>

4. [그래서 느그당 이름은?]

경애하는 더불어 민주당이 원욱의원 동지께서 감히 정부와 자본에 충성하지 않는 민주노총에게 '민주' 글자를 빼라는 엄명을 내리시었다. 존경하는 이원욱의원 동지께서는 민주노총이 국민 고통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으시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시면서, 노조 조직률 11% 중 절반 뿐인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니 노동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회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교시를 내리시었다.

어떤가, 정말 헛소리의 향연이 아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원욱의원의 이야기는 이상한 소리들 뿐이다. 사리 사욕을 위해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이원욱의원은, 정작 수많은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 후안무치한 노동자 탄압을 일삼고 있는 자본의 손아귀는 보이지 않는가보다. 그렇게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사람이 최저임금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정책에서 반동적, 반노동적 행태를 보이는 정당에서 정치질하면서 자신은 국민을 위한다고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가보다. 노동 조합 조직을 먼저 탄압하고 찍어눌렀던 정부와 자본의 행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조직률 만보고 노동자를 대변하니 대변하지 못하니 하고 있는가보다.

우리는 여기서 국가 체제와 의회 민주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한계를 느낀다. '민주' 딱지를 떼라고 강력히 '사이다' 발언을 내세우는 의원이 속한 당에서는 정작 20% 대당원 투표를 집행한 것 가지고 그것이 당원의 민심이니 뭐니 하면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논란이 되니 그 '당원 투표'는 여론 조사일 뿐이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다못해 민주노총이 노사 정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철회하는데에는 대의원 회의에서 투표를 거치는 절차라도 거쳤지, 더불어 민주당에서 '민주'를 붙일 논거는 어디에 있는가? 당지도부와 프롤레타리아 학살자 대통령의 입?

국가 체제에 복역하는 정당들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으며, 국가 체제 그 자체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한 없이 많이 이야기 해왔다. 동시에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끊임 없이 이야기 해왔다. 우리의 선택은 그렇기에 확연하다. 우리는 노동자들과 인민의 직접 투표로의 사가 결정되는 조직들의 연합을 추구한다. 민주를 부르짖으나 민주주의가 없는 정당 따위와는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민주를 추구하나 민주주의가 없는 국가 체제와는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http://naver.me/FLSkjnfI>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29
2020 년 11 월 29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57890977>

kr.theanarchistlibrary.org